바이든, '민주주의 위한 정상회의' 추진

중·러 등 反민주주의 국가 견제
내년 회의 개최 공동의제 마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사실상 중국과 러시아 등 반(反)민주주의 국가를 견제하기 위해 취임 후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미 언론이 보도했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은 '포스트 트럼프' 미국이 국내외의 민주주의에 전념하는 것을 보길 희망하며, 내년에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의 모임을 주최할 것을 약속했다.

앞서 바이든은 지난봄 이 회의에 대한 일단의 구상을 밝히면서 "세계 민주국가들이 모여 민주주의 체제를 강화하고,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국가들에 솔직하게 맞서고, 공동 의제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 후 1년 이내에 이 회의를 열 경우 코로나19 탓에 가상으로 열릴 가능성이 크지만, 일부 전직 관리들은 더 큰 영향력을 위해 대면 참석이 가능할 때까지 미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상회의가 언제 열리든 중국과 러시아는 초대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폴리티코는 "바이든이 초청 명단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새 대통령이 어느 나라를 선호하는지를 포함해 그의 외교정책에 대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미국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며 "경제력과 정치적 권위주의가 결합한 중국은 세계 민주주의에 더 큰 장기적인 위협으로 여겨지고 있고, 정상회의에서 주요 토픽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러시아 같은 국가로부터 공격받는 민주적 규범 보호를 피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이 회의의 가장 중요한 신호로 보고 있다. 이는 독재자들에게 공개적으로 환심을 사려 했던 트럼프 대통령과는 다른 환영받는 변화가 될 것이라고 이들은 덧붙였다.

하지만 바이든이 언급했듯이 이 회의가 민주주의 정상회의(Summit of Democracy)가 아닌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Summit for Democracy)라는 점에서 초대 대상이 왜곡될 가능성도 폴리티코는 지적했다. 많은 정부가 민주적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은데다, 그런 나라가 초대되면 그들의 잘못된 주장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위험한 접근법이라는 것이다.

폴리티코는 "극단적인 예는 북한"이라며 북한의 공식 명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지만 독재자에 의해 통치되고 지구상에서 전체주의국가에 가장 근접한 나라라고 밝혔다. 대통령 축출 압박을 받는 벨라루스 역시 마찬가지다. 따라서 이들 국가는 초대받지 못할 것이라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인도가 가장 까다로운 케이스가 될 것이라고 전 관리들은 보고 있다. 인도는 민주주의 성공 국가로 여겨진 데다 미국이 인도를 중국에 대항하는 방어벽으로 보기 때문에 인도와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만,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정적과 언론, 무슬림들을 탄압해왔다는 이유 때문이다. 폴리티코는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민주국가라고 자부하는 인도조차 최근의 반민주 추세를 볼 때 명단에 들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연합뉴스

바이든 '입'에 '오바마 사단' 젠 사키
미 역사상 첫 공보참모 7명 전원 여성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자신과 백악관의 입이 될 대변인 등 공보팀 선임 참모들을 모두 여성으로 채우는 인사를 단행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차기 행정부 백악관 초대 대변인에 젠 사키 인수위 선임고문을 임명했다고 로이터·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사키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백악관 공보국장과 국무부 대변인을 지냈다.

백악관 공보국장에는 캠프 선대부본부장을 지낸 케이트 베딩필드가 낙점됐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대변인으로는 선거 캠프 수석보좌관이었던 시몬 샌더스, 퍼스트레이디가 되는 질 바이든 여사의 공보국장으로는 오바마 행정부 당시 바이든 부통령의 대변인이었던 엘리자베스 알렉산더가 각각 임명됐다. 또 백악관 부대변인으로는 캠프 선임 보좌관을 지낸 카린 장-피에르, 부통령실 공보국장에는 애슐리 에티엔이 발탁됐다. 샌더스와 장-피에르, 에티엔은 흑인이다. 이밖에 공보부국장에는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의 히스패닉 미디어 담당관을 지낸 필리 토바가 이름을 올렸다.

바이든 당선인은 성명에서 백악관 공보팀 최고위직이 전적으로 여성으로 채워지는 것은 미국 역사상 처음이 될 것이라며 "전원 여성으로 구성된 최초의 백악관 선임 공보팀을 발표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민에 대한 직접적이고 진실한 소통은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의무 중 하나"라며 "이 팀은 미국민을 백악관과 연결하는 큰 책임을 맡는다"고 밝혔다.

또 "자격을 갖추고 경험 있는 이들은 자신의 업무에 다양한 시각과 함께 이 나라를 더욱 잘 재건하기 위한 공동 책무를 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첫 여성 부통령이 될 해리스도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대유행에서 경제·기후 위기, 인종적 불평등에 이르기까지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과 명확하고 정직하고 투명하게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연합뉴스

"군주제 개혁"…태국 시위 태국의 민주화 시위대가 지난 29일 왕실 근위대의 본부가 있는 방콕의 제11보병 연대 기지 부근에서 총리 퇴진과 군주제 개혁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이란 핵과학자 제거는 중동과 전 세계에 도움 됐다"

이스라엘 정보부 장관

엘리 코헨 이스라엘 정보부 장관은 29일(현지시간) 이란의 핵 과학자 모센 파크리자데 암살이 전 세계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코헨 장관은 이날 이스라엘군 라디오 방송에서 파크리자데의 죽음에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며 "그(파크리자데)를 제거한 것은 중동과 전 세계에 도움이 됐다"고 주장했다고 이스라엘 언론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이 보도했다. 그는 이어 "핵무기를 만들려고 적극적으로 나선 사람은 누구나 사형장으로 간다"고 경고했다.

또 코헨 장관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파크리자데 암살에 대한 이스라엘의 개입 여부를 암시하지 않았다며 누가 암살의 배후인지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군 라디오 방송에서 유럽연합(EU)이 파크리자데 암살을 규탄한 것에 대해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고 dap 통신이 전했다.

앞서 지난 27일 이란 국방부의 연구·혁신 기구 수장이자 핵 과학자인 파크리자데가 수도 테헤란 인근 소도시 아브사르드에서 테러 공격을 받아 숨졌다. 이후 하산 로하니 대통령 등 이란 지도부는 이번 사건의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하고 복수를 경고하면서 중동의 긴장이 고조됐다. 아울러 이스라엘군은 29일 시리아에서 이란을 겨냥한 군사 작전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박종구의 中國 인물 이야기

〈초당대총장〉

〈259〉 유병충

대원 제국 통치체계 세운 쿠빌라이 참모

유병충(劉秉忠, 1216~1274)은 하북성 형주(邢州) 사람으로 자는 중회고 자호는 장춘산인이다. 몽고의 쿠빌라이를 보좌해 대원제국 설립과 제도 구축에 기여했다.

금나라에 출사해 형대절도부영사가 되었다. 하루는 스스로 탄식하기를 "우리 집안은 관직을 이어왔는데 나는 서기에 머물러야 하나? 대장부로 태어나서 때를 못만나면 물러나 기다렸다 일어설 따름이다." 사직하고 무안산에 은거했다. 승려가 되었는데 법명은 자총(子聰)이었다. 주역을 공부해 일가를 이루었다. 해운선사 추천으로 1242년 쿠빌라이 참모가 되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총서기(總書記)로 불렀다. 여러 명의 인재를 쿠빌라이에게 추천했다. 곽수경은 천문 지리 수학에서 많은 업적을 남겼고 왕순은 산문과 천문에서 뛰어난 재능을 발휘했다. 원사(元史)에 따르면 유병충은 쿠빌라이의 이상적인 참모로 묘사되어 있다. 시, 서, 화에 뛰어났으며 수학자, 천문학자이기도 했다. 천문가들과 협업해 수시력(授時曆)이라는 달력을 고안했다. 몽고 황실의 음악과 각종 의례를 마련하는데도 솜씨를 보였다. 유병충의 실무적 재능과 풍부한 경험이 쿠빌라이가 실용적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기여했다.

몽고 제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학자 관료층을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학교를 세우도록 하였다. 법률 시스템과 합리적인 조세 제도를 도입토록 건의했다. 중국의 전통에 따라 전 왕조인 금사(金史) 편찬도 제안했다. 쿠빌라이는 대부분의 제안을 수용했지만 과거 시험 부활에는 반대했다.

쿠발라이의 대리(大理) 원정에 수행했는데 주민에 대한 대대적인 학살과 재물 약탈을 막았다. 주민을 몰살하는 도성(屠城)을 백지화하였다. 북경에서 약 200킬로 떨어진 몽고 초원에 새로운 수도를 건설하는데 일익을 담당했다. 개평부(開平府)로 불리는 수도로 후일 상도(上都)로 바뀌었다. 그의 건의에 따라 개평부를 과거 중국의 수도를 모델로 삼아 건설했다. 유목 왕조에서 정주 왕조로의 전환을 상징하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

1260년 쿠빌라이는 대원 제국을 세웠다. 연경을 수도로 삼았다. 중국 경영을 위한 체제 구축이었다. 국정의 중추 기관인 중서성, 군정을 관장하는 추밀원, 최고 감찰기관인 어사대를 설치했다. 유병충은 중서성을 담당하고 태보(太保)가 되었다. 관리의 직급과 급여를 정비해 통치 체제를 확립했다. 무역을 장려하고 상인들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 영지내 지폐 유통을 추진하였다. 쿠빌라이는 지폐 사용을 추진한 최초의 몽고 지도자였다. 금·은·동으로 된 경화(硬貨)가 북중국에서 널리 활용되도록 쿠빌라이를 설득하는데 성공했다. 통화량을 적절히 통제해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도로와 역참(驛站) 건설에 적극 나섰다. 쿠빌라이 통치 말기까지 1400개 이상의 역참이 중국 전역에 설치되었고 효율적인 우편 기능을 담당했다.

대원 제국의 수도인 대도(大都) 건설은 유병충이 주역이었다. 주역에 나오는 이상적인 수도 계획을 참고해 건설했다. 야흑질이라는 이슬람 건축가가 설계를 담당했는데 도시의 관념과 스타일은 기본적으로 중국적이었다. 쿠빌라이는 대도 건설을 통해 자신이 중국의 전통과 원칙을 수용할 자세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중국식 궁중 의례 복원도 유병충의 몫이었다. 그는 유학자들을 선발해 선대 왕조의 의례를 연구했다. 1217년까지 유교식 궁정 음악과 춤이 도입되었다. 태상예의원(太常禮儀院)을 설치해 중국식 음악과 의례가 착근되도록 노력했다. 1274년 병사했는데 조국공에 봉해졌고 시호는 문정(文正)이다. 저서인 장춘집이 전해진다.

유병충은 늘 부귀를 뜬 구름처럼 생각했다. 하루는 쿠빌라이가 그의 공을 인정해 백금 천냥을 하사했다. 그는 말하기를 "저는 일개 필부에 지나지 않으며 운이 좋아 황제의 인정을 받았는데 금은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쿠빌라이가 친척에게라도 주라고 하자 거절하지 못하고 친척, 친구, 부하에게 나누어주었다. 그는 쿠빌라이의 중국 통치가 중국식 전통인 도덕과 실용의 이상적 결합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보좌한 참모였다.

사랑과 감사의 66년 1954~2020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2021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 / 대학원 신입생 모집

Passion Vision Truth 열정 꿈 진리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학 부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모집단위		모집인원
계열	학과	정시
인문사회	신학과	15
	한국어교육학과	2
	복지상담융합학부 (사회복지학 전공 / 코칭평생교육상담학 전공)	3
사범	유아교육과	3
예능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 /실 용음악학 전공)	6
총계		29

※신학과는 군종사관후보생(군종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학부 전형일정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21. 1. 7(목) ~ 11(월) · 전 형 일: 2021. 1. 18(월)

대 학 원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대학원	과정	모집학과	모집인원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30
		성경연구학과(Th.M.)	10
일반대학원	박사	신학과(Ph.D.)	6
		목회학과(D.Min.)	2
		유아교육학과(D.Ed.)	5
		사회복지학과(D.S.W.)	6
		상담심리치료학과(D.C.S.)	7
		코칭심리학과(D.Psy.)	7
		통합예술심리치료학과(D.C.S.)	5
		휴먼서비스교육학과(D.Ed.)	12
	석박사통합	통합예술심리치료학과(D.C.S.)	10
	석사	신학과(Th.M.)	14
		유아교육학과(M.Ed.)	8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상담심리치료학과(M.A.)	15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10
		코칭심리학과(M.Psy.)	10
		재활심리치료학과(M.A.)	10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15
		평생교육학과(M.Ed.)	10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육학과(M.Ed.)	20
		휴먼서비스교육학과(M.Ed.)	8
음악대학원	석사	음악학과(M.A.)	6
		실용음악학과(M.A.)	6

■ 전형일정

일반전형

· 원서접수: 2020. 11. 30(월) ~ 12. 9(수)
· 전 형 일: 2020. 12. 11(금)/12(토)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www.kwangshin.ac.kr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

입학문의 ▶ 학 부 062) 605-1114 / 대학원 062) 605-1115